

# “동서고속화철도·동해 경제자유구역 해결” 한목소리

## 새누리당 대선주자 합동연설회

‘강원도민 희생·홀대 정당한 보상’ 관련 공약 봇물 ... 표심잡기 경쟁 후끈

평창올림픽 적극 지원·남북관계 개선·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안대책 제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강원도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1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은 ‘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홀대’를 강조하며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후보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을 50억원 반영한 지역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며 “이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한 “강원도민들의 희생 덕에 수도권 2,500만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함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한강수계법 개정 등을 시사했다.

김문수 후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시 재개하도록 하겠다”며 “DMZ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지정작업을 추진하

임태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한강수계법 개정 통한 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적극 지원, 남북관계 회복, 도 관광·의료산업 활성화
김문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금강산 관광 재개, DMZ 유네스코 생물권 지정,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 지원
안상수	평창 세계적 휴양지 조성,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및 유리아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랜드 수익금 전액 강원도 투입
김태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제2의 알프스 조성, 원주 의료기기산업 지원, 동해안 경제특구
박근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및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남북관계 개선 통한 도 경제 활성화

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후보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 서울에서 속초까지, 속초에서 유리아 철도까지 연결하고 가스·석유관도 연결해 도 발

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평창을 아시아 부자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물론 강원랜드 수익금은 전부 강원도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강원도를 제2의 알프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해~강릉을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외국인 특구로 만들어 상인들이 머물고 거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꼭 지정할 필요가 있고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계해 강원도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도 조기 착공,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해 강원도를 유리아 경제권 시대를 여는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영기자 wanki@kwnews.co.kr

## 김현우 도레슬링협회 포상금 1억원 받는다

도레슬링협회 김래선 회장이 내걸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억원 포상금이 강원지사 김현우(삼성생명·강원고 졸)에게 돌아갔다.

김래선 회장은 한국레슬링의 발전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골극레슬링 금메달리스트 탄생을 기원하는 뜻으로 대회 직전부터 금메달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없을 경우 한국레슬링이 자칫 장기부진에 빠져 위기에 처할 것을 걱정했던 김 회장이 한국레슬링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포상금을 내놓은 것이다.

급기야 김 회장은 한국레슬링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금메달을 캐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자 런던으로 떠나 경기장을 찾아 한국선수들을 응원했다.

대회 전부터 기대주로 꼽혔던 정지현(삼성생명)이 아깝게 메달권에 서 멀어지자 한국레슬링계는 초조해졌다.

그때 나타난 선수가 도 출신 김현우였다.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 나선 김현우는 첫 판부터 상대를 손쉽게 요리하더니 결승에서 헝가리 선



◇2012 런던올림픽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딴 김현우(가운데)와 그를 격려하러 런던을 찾은 김래선 도레슬링협회장(사진 오른쪽), 이동욱 전무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래선 회장 대회 직전 금메달 기원 상금 내걸어

### 도 출신 김현우 8년 만의 금 ... 16일 총주서 전달

수를 2대0으로 제압, 이번 대회 한국 레슬링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끊겼던 한국레슬링의 올림픽 금메달 계보가 8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 서는 그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은 금메달 소식이 기뻐했고 그 주인공이 강원전사인 것에 감격했다. 김래선 회장은 오는 16일 총주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대회에 참석, 김현우에게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스포츠강국 걸맞은 동계종목 지원 요구

설상종목 육성·동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필요성 지적

도 지속 요구에도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포함 안돼

도 출신을 중심으로 한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한 동계스포츠콤플렉스(종합선수촌) 건립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따낸 메달은 10일 현재 총 25개로 이중 20%인 5개씩은 한순동 메달 후보 포함)는 도 소속 및 출신 선수들이 이뤄낸 쾌거다. 사격의 진중오(강원사대부고 졸)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고 김현우(강원고 졸) 선수는 레슬링에서 금메달, 정길욱(강원도청) 선수는

펜싱에서 단체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남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쾌거가 비록 하계올림픽에서 나온 것이지만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과, 2018동계올림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 6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모든 메달이 빙상종목에서 나와 설상종목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하계스포츠 훈련시설은 대동과 진천 등 2곳이 있지만 동계스포츠 종합훈련시설은 단 한 곳도 없어 2014 소치동계올림픽은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도는 평창에 동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해 줄 것과 알펜시아 동계스포츠지구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 줄 것을 을 초부터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예산편성만 해준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께 공포될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도 동계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 국비지원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설상종목 선수육성을 위한 콤플렉스 건립비용은 1,000억원, 건립공사는 2년간 가장으로 예상된다. 이규호기자